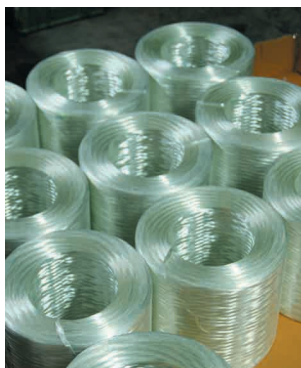


끊임없이 탈피하는 기업 (주)한국화이바

곤충은 다 자란 성충이 되기까지 몇 번의 탈피를 한다. 그리고 탈피 과정을 지나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탈피라는 것이 말 그대로 기존의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뜻을 돌이켜 보면 굳이 되새길 필요가 없는 말이겠지만, 기업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더 나은 모습을 위해 낡은 껍질을 깨고 있는 기업, (주)한국화이바를 찾았다.

블루오션을 보다

조용준 회장이 유리섬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벌써 40여 년 전. 당시 근무하던 병원원장의 일제 낚싯대 때문이었다고 한다. 낚싯대 하나가 쌀 한 가마니 가격과 맞먹는 사실을 알고 그 소재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유리섬유와의 인연.



하지만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다. 전후 복구가 한창이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였기에 당장 쓸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으려 했고 그런 이유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정보도 부족했다. 게다가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도,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때문에 모든 것은 독학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그렇게 혼자 힘으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첫 유리섬유를 만들게 되었고 이후 1972년부터는 (주)한국화이바라는 이름의 기업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블루오션을 조용준 회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척해왔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후 (주)한국화이바의 역사는 연구개발의 역사와 다름없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노력 덕분에



지난 1990년과 1991년에는 미국 보잉사와 맥도널드 더글라스 사로부터 항공기 부품 원자재 인증을 획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다 보니 국내 공인 시험기관은 물론 포항공대 등에서도 (주)한국화이바에 실험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그 어느 곳보다 다양한 실험 기구와 많은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유리섬유에 대한 노하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주)한국화이바에서 유리섬유복합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유리섬유복합관이 개발되었으니, 어찌 보면 늦어도 적지 않게 늦은 감이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영영 출발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우선 제품부터 내놓는 것은 (주)한국화이바의 생리와 맞지 않는 일. 그렇게 상용화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파괴시험, 비파괴시험, 내화학시험은 물론이고 내피로, 내마모, 장기노후화 등 장기간시험을 철저히 하기 위해 보낸 시간이었기에 아깝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인고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4년 WATER KOREA에서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험이 우리의 힘

유리섬유와 카본 등 소재 분야에서 이미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손꼽히는 (주)한국화이바의 성장동력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경험을 최우선시 하는 경영주의 마인드였다.

‘이미 남이 알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항상



01



02



03

- 01 강성 및 널링 테스트
- 02 동양 최대의 수압시험기
- 03 연속 필라멘트 와인딩 방식의 파이프 생산공정 라인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조용준 회장은 연구개발에서 1/100의 성과를 같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간 연구개발과정에서 작지 않은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그 역시 더 높은 발돋움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 이와 같은 기업 분위기 덕분에 사업장을 오가는 사원들의 얼굴은 하나 같이 자신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닌 과정을 통해 얻는 경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래서 사원 모두가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원이 되는 곳.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경험 없는 지식보다 지식 없는 경험이 낫다’

오늘의 (주)한국화이버를 있게 한 밑바탕은 바로 실패를 두

Products

(주)한국화이버 대표 생산제품



GRP맨홀(복합맨홀)

기존의 조립식 콘크리트 맨홀이 몰탈과 양생시간을 제외하고도 5~6시간, 현장 타설식 맨홀은 6~7일이 걸리는 반면, GRP맨홀은 단 두 시간 내에 모든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또 유리섬유의 탁월한 내부식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별도의 보수 등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직관(直管)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직관은 콘크리트관이나 금속재료관보다 월등한 강도를 보이는 반면, 플라스틱재료관과 맞먹는 가벼운 중량을 자랑한다. 게다가 부식에도 매우 강해 50년의 사용기한을 보장하는 것도 큰 특징. 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아 상·하수도 모두 사용 조건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으며 유리섬유 특유의 탄성 덕분에 격관을 쓰지 않고도 굴절시공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추진관

(주)한국화이버의 추진관을 사용할 경우 노후관 교체를 위한 공사가 훨씬 간편하고 빨라진다. 기존의 노후관 안에 추진관을 삽입하고 노후관과 추진관 사이에 몰탈을 채워넣는 것으로 노후관에 대한 보수가 끝나는 것. 추진관의 양쪽 끝에 실링은 유리섬유보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실링으로 인한 누수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회 기업회원의 기업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문의 : 기획처 홍보팀 신재택 (직통전화: 02-3156-7731)

려워하거나 그것에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 바로 그것이었다.

현재 (주)한국화이버는 경남 지역에 총 4개의 공장(부산에 1개소, 밀양에 2개소, 함양에 1개소)과 1개의 지사(서울)를 갖고 있었다. 규모만으로도 이미 중견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었는데, 그 내실은 더욱 탄탄했다. 1,600명을 넘어서는 임직원과 2,5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매출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사용될 신소재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사업장의 분위기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01 유리섬유복합관 생산과정
02 친환경 유리섬유복합관으로 만든 어항

Interview

(주)한국화이버 조용준 회장



이미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지나온 삶을 반추하고 여생을 즐길 때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사례가 조용준 회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그는, 아직도 할 일이 잔뜩 남아 있는 젊은 연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주)한국화이버의 성장 비결에 대해 묻는 것은 어쩐지 검연 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조용준 회장이 갖고 있는 경영철학은 이런 뜻내 나는 생각을 무색케 하는 것이었다.

“인류문명의 발달은 결국 소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과학문명의 발달은 소재의 변천과 궤를 같이 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우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소재의 진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신소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미개척분야인 유리섬유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자재로부터 응용제품에 이르는 무한한 시

장성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비전을 걸게 된 이유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감행해 왔습니다. 그 40여 년의 노력이 지금의 결실을 맺게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이 걷지 않는 길을 처음 밟는 데에는 적잖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좌절로 점철된 고난 속에서 목표를 성취할 때의 기쁨은 연구 개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괴로움을 모두 보상해주곤 했습니다.” 조용준 회장의 연구개발에 대한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기업에서도 쉽게 행할 수 없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바로 조용준 회장의 진면목이라는 평가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결과물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밀양은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때문에 대도시 공단지역과 환경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점을 보충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잔디구장 등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일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호회 격려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복리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장 한편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휴식공간인 ‘녹산원’과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공작, 꿩, 구관조와 같은 10여 종의 조류 역시 조용준 회장이 갖고 있는 사원들에 대한 배려의 한 자락이었다. 소년의 것과 같은 호기심과 청년들도 감당하지 못할 추진력. 그리고 매사에 정확한 판단. 조용준 회장이 갖고 있는 빛을 잃지 않는 보물들이 바로 (주)한국화이버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